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s Determinants of Parenting Practices among Poor Single Mothers

안성산업대학교 생활관리학과
전임강사 金 映 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부 교 수 韓 慶 惠

Dept. of Home Management, Ansung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Young Hee, Kim
Dept. of Agricultural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Gyoung Hae, Ha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explain parenting practices. Those factors considered are stress and characteristics of single-mother/child, together with psychological distress experienced by the single mother. A total of 285 poor single mothers with a child attending elementary school or junior high school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were analyzed by the path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poor single mothers rely on affective/supportive involvement more frequently than punitive/inconsistent discipline.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financial stress, living

* 1996년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environmental stress and job status, play important roles in determining the quality of parenting practices, with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distress.

1. 서론

편모가족이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혹은 미혼모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편모가족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편모가족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빈곤 편모세대 즉 국가에서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요보호 편모가족은 1992년 현재 전체 편모세대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빈곤편모가족의 자녀문제, 즉, 자녀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편부모 가족구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다양한 환경적 변수, 그 중에서도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인숙, 1994b; 김정자, 1985, 1988; Bank, Forgatch & Patterson, 1993; McLanahan & Booth, 1989). 편모는 양친가족의 어머니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적절하게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Hetherington & Cox, 1978) 이러한 부적절한 부모행동은 자녀의 적응 및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ank et al., 1993).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연구들은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의 내용과 질(quality)에 대하여 다층면적이며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있으며,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편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가족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을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Crnic & Greenberg, 1990; Weinraub & Wolf, 1983, Zerkowitz, 1982). 편모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겪으며, 더우기 빈곤 편모가족은 일반 편모가족에 비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스트레스에 더욱 많이 노출되고 있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빈곤층 편모의 경우 거부적 양육태도와 처벌적인 훈육을 사용한다고 Zerkowitz(1982)는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빈곤층 편모들이 모든 형태의 스트레스에 일률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에 따라 심리적으로 크게 반응할 수도 있고 혹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한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로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수행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물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지적하였으며(김인숙, 1994a; Belle, 1982), 높은 수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비지지적이며 비일관적 행동을 보여준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McLoyd, 1990). 따라서 스트레스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결국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의 편모의 특성 및 수, 연령 등의 자녀의 특성에 따라 부모역할 수행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빈곤층에서 편모의 취업여부는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밝혀졌다(Pett, Vaughan-Cole & Wampold, 1994).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 달리 다음과 같은 시각과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편모의 부모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부적응 문제와 관련시켜 주로 부적절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수행을 부적절한 행동 및 적절한 행동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부모역할 수행은 양육 및 훈육행동으로 한정한다. 또한, 관련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편모/자녀 특성과 부모역할 수행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관련연구 고찰

1. 빈곤층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

빈곤편모가족은 편모가족 중 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가난한 요보호 편모가족을 가리킨다¹⁾. 빈곤편모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자녀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김정자, 1985; 백경희, 1987), 자녀의 부적응 상태나 문제행동에 편부모 가족구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최경순, 1979).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구조가 미치는 직접적 영향보다는 환경적 변수들이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매개변수를 찾아내 이들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적 매개변수의 예로 경제적 압박, 역기능적인 편모-자녀관계 등을 제시한 McLanahan 과 Booth(1989)의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이 가정환경상의 변화 및 편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편모는 자녀를 대하는데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감정적, 신경질적으로 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더우기 빈곤층 편모는 빈곤상황이라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조건 속에서 더욱 어려운 처지이며 이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동안 서구에서는 이혼한 편모와 양친가족 어머니간의 부모역할 수행의 차이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Hetherington 과 Cox(1978)의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 상실후 첫 해동안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의 증가 및 사회활동의 위축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붕괴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편모가 자녀에게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는 정도가 낮고, 애정표현이 적으며, 일관성 없는 훈육행동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Astone 과 McLanahan(1991)에 의하면 편모가족

의 어머니는 양친가족 어머니보다 청소년 자녀의 학교활동에 관해 감독, 지시하는 경향이 적으며, 숙제나 교과과정 계획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 편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5년간(1987~1991) 서울소년감별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편부/모들은 방임적인 태도, 일관성이 없는 훈육, 엄격한 태도 등을 많이 보이고 있으며, 그들이 방임하는 훈육태도를 나타낼 때 청소년의 비행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편모가족 비행청소년에게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편모의 양육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부적당하며, 편모의 양육행동과 양친가족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최근들어 고성혜·한유진(1995)은 편모의 양육행동 중에서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동을 들어 양친가족 어머니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편모가족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양친가족의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어머니가 일관성 없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순되는 행동을 많이 보이며, 편애와 비교가 심하고 거부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편모의 부모행동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적응이나 발달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신체적 처벌, 비일관적 훈육, 적당치 않은 지시 및 감독수준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부모역할 수행을 일차원적인 구성체로 보지 않는 관점에서는 부모역할 수행이 다차원적인 측면으로 탐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아동발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Maccoby & Martin, 1983) 온정적이거나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되고, 처벌적이거나 비일관적 훈육행동은 부정적 발달과 각각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부모역

1) 모자가정의 생활등급은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최하 1등급부터 최고 9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요보호 모자세대는 현재 국가에서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는 모자가정으로서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할 수행으로 온정적/지지적 관여를, 부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으로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을 구분, 설정하였다.

2.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수행과의 관계

일찌기 Elder(1974)의 연구로부터 가족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이 비롯되었으며, 그 후 부모역할 수행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많은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환경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최근들어, Belle(1982)는 빈곤여성이 겪는 긴장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내재된 만성적인 생활조건들로부터 유래된다고 강조하였다. 즉, 빈곤층 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생활사건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시적 사건보다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열악한 생활조건들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상적 스트레스는 몇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생활사건보다 더욱 위협적이 되기 때문이다(Kanner et al., 1981; 김인숙 1994a에서 재인용). 편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파악에서도 Olson 과 Banyard(1993)는 일상생활의 단편들(slices of daily life)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아 단지 몇몇 실증연구(Pett et al., 1994; Zerkowitz, 1982)들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Zerkowitz(1982)는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을 때 편모가 제한적, 거부적 훈육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양육 및 훈육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Giovannoi(1970; Zerkowitz, 1982에서 재인용)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모역할에 할애하는 시간이나 노력이 심하게 제한되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극소화된 부모역할 수행을 Zussman(1982)은 최소한의 부모역할 수행(minimal parenting)이라 묘사하였다.

3. 편모/자녀의 특성과 부모역할 수행과의 관계

부모역할 수행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부모의 개인적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편모는 일하고 있으므로 편모의 개인적 특성 중 직업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Pett et al., 1994). 일반적으로 편모의 취업은 과중한 역할부담을 가져와 부모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빈곤층의 경우 경제적 수단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예비조사 결과에서도 직업이 없는 빈곤층 편모들은 만성적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많이 우울해 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직업이 없는 경우 오히려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이는 다시 부모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 및 사회적 지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 때 부모역할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양육 방법에 관한 책자나 강의 등을 접하는 기회가 크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교육수준이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밝힌 연구가 많지 않으나, 박미령(1992)은 저소득층 어머니들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어머니 특성뿐만 아니라 자녀 특성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지적(Belsky, 1984)을 감안할 때, 자녀 수 및 자녀의 연령이 부모역할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편모들은 부모역할을 혼자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자녀수가 많다는 것은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는 양육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녀연령의 경우 Pett 등(1994)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 자녀특성 변수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4.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매개역할

앞에서는 빈곤층 편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상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Simons et al., 1993). 다시 말하여, 편모들은 모든 형태의 스트레스에 일률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심리적 반응 즉,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서상태에 의한 매개역할을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편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이유로 예상이 가능하다. 우선, 정서상태와 부모역할 수행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Pett et al., 1994; Simons et al., 1993). 예를 들어, 우울한 어머니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자녀와 상호작용에서 친근한, 애정적 표현을 덜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편모의 정서상태와 부모역할 수행간 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러 실태조사에서 편모의 부정적인 정신건강상태를 보고하는 정도이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정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에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다(McLoyd, 1990; Zeligowitz, 1982). 특히,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복합적이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절박한 위기나 부정적 사건 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더 심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Belle(1982)는 다른 계층보다 빈민층 사람들이 만성적 스트레스를 경험할때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더 쉽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빈곤여성의 우울증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제 및 건강 스트레스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관측되었다(김인숙, 1994a). 한경혜(1993)는 이혼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생활만족도나 자긍심으로 측정된 심리적 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다시 부모역할 수행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정서상태와 부모역할 수행과의 밀접한 관계를 염두에 둘 때, 편모/자녀특성은 부모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외에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러 실증연구들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고정자·김갑숙, 1996), 보편적으로 취업 주부가 비취업 주부보다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지만(Kessler & MacRae, 1982), 주부가 자발적이며 비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경우에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Kelly & Voydanoff, 1985; 고정자·김갑숙, 1996에서 재인용). 한편, 자녀수가 많을때 편모의 부적응율이 높다(Pearlin & Johnson, 1977; 한경혜, 1993에서 재인용)고 지적하였으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한다(Price & Mckenry, 1988)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편모/자녀 특성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통하여 부모역할 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관련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빈곤층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의 질은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빈곤층 편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빈곤층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 변수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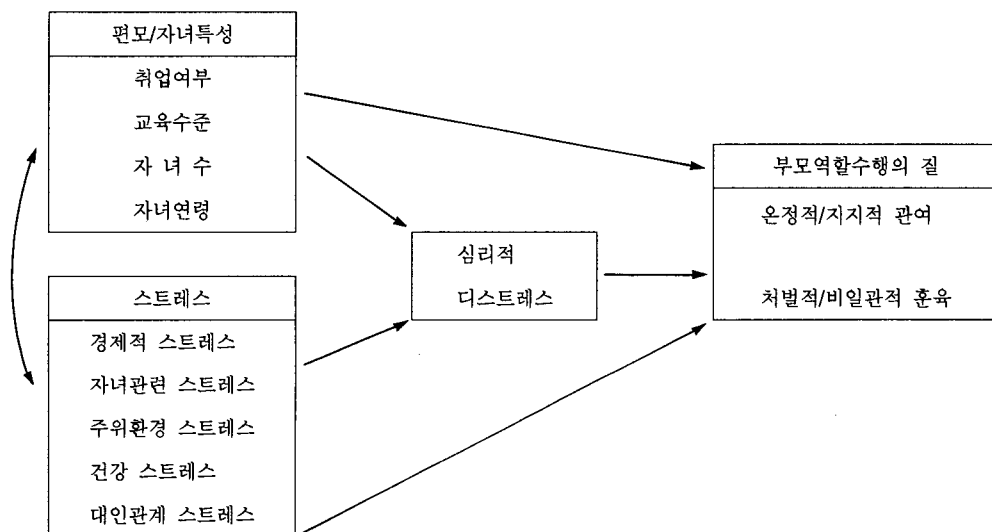
가설 3-1.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편모의 교육수준, 취업여부와 자녀수, 자

녀의 연령은 부모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이다.

이상의 연구문제와 가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구성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빈곤층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의 연구모형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도구는 4종류의 질문지로 이는 빈곤층 편모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 부모역할 수행의 질, 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지들이다.

양육 및 훈육 행동만으로 부모역할 수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Simons 등(1992)의 Supportive Parenting Scale, Ahrons(1983)의 Parent Involvement Scale, Curtner-Smith(1994)의 부정적 훈육방법의 질문지, 이윤호(1991)의 부모에 대한 친근감을 측정할 항목 등을 이용하였다. 우선적으로, 친근감 및 온정적 행동, 지도,

처벌적 또는 비일관적 훈육 등을 측정하기 위해 13 문항을 이용하였으나, 친근감 및 온정적 행동 2문항과 처벌적 훈육 1문항은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아 제외시키고 총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역할 수행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늘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7개문항)은 자녀행동에 대한 지도와 친근감 및 온정적 행동을 표시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온정적/지지적 관여'라 칭

하였으며, 요인 2(3개 문항)는 신체 처벌적 또는 비일관적 훈육행동이기 때문에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이라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alpha = .81$, $\alpha = .57$ 이다. 온정적/지지적 관여의 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한 부모행동을 많이 하고,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절한 부모행동을 많이 함을 나타낸다.

빈곤층 편모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Belle(1982)의 빈곤여성의 생활조건 항목, Olson 과 Banyard(1993)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조사, 박미령(1991)의 도시 빈곤가구의 실태를 참조

하였다. 총 17개 문항 중 종속변수인 부모역할 수행과 개념적으로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문항 1개와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 1개를 제외하고 1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환경을 서수적으로 점수화하였다. 먼저 각 문항에 대하여 지난 1년간 경험유무를 물어보아 경험이 없는 경우를 1점으로 처리하였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별로 괴롭지 않다'(2점), '약간 괴롭다'(3점), '많이 괴롭다'(4점), '극도로 괴롭다'(5점)로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결과 '경제적 스트레스'(요인 1, 5문항), '주위환경 스트레스'(요인 2, 3문항), '자녀관련 스트레스'(요인 3, 3문항), '대인관계 스트레스'(요인 4, 2문항) 그리고 '건강 스트레스'(요인 5, 2문항)의 5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alpha = .93$, $\alpha = .86$, $\alpha = .86$, $\alpha = .89$ 이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부적 측면을 나타내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살펴보기 위하여 Zung(1965)이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김인숙(1994)이 번역한 자기평가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및 Spielberger(1975)의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인숙(1994)이 번역한 불안척도를 참조하였다. 이들 척도의 40개 문항 중에서 편모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안면타당도를 통해 1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점)의 4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90$ 이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인 빈곤편모가족의 모집단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요보호 편모세대로 하였다. 조사지역을 대전으로 한정된 것은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편모는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로 제한하였다. 질문지 조사시 표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확률표집인 편의표집을 사용하였

는데, 대전시청 부녀복지과를 통하여 대전시 5개 구의 총 300가구를 대상가구로 정하였다. 이밖에, 대규모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 1곳을 선정하여 해당 아파트 주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접촉이 가능하다고 생각된 60가구를 선정하였다. 동사무소 직원, 복지사 2명 및 연구자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면접에 의해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본 조사는 1995년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총 360부 중 312부가 회수되었으나, 회수된 질문지 중 내용 기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285부(91.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질문지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사용하였고, 각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교회전을 통한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과 2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하여 온정적/지지적 관여 및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의 두가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빈곤층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의 질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은 자녀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심층면접을 통해 자녀가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면접자들의 상당수가 자녀를 살아가는 의미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들에게 자녀는 삶의 보람이며 기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역할 상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85)*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
편모의 연령	20~29세	4	1.4	월 수입	10~30만원	41	15.2
	30~39세	140	49.5		31~50만원	128	47.4
	40~49세	124	43.8		51~70만원	74	27.4
	50~59세	15	5.3		71만원이상	27	10.0
편모가 된 원인	사 별	165	60.2	자녀수	1명	11	7.1
	이 혼	54	19.7		2명	95	61.7
	별 거	23	8.4		3명	37	24.0
	기타(유기, 미혼모등)	32	11.7		4명이상	11	7.0
편모가 된 기간	1~5년	139	54.1	교육수준	무 학	8	2.8
	6~10년	89	34.6		국 졸	75	26.6
	11~15년	24	9.4		중 졸	105	37.2
	16년 이상	5	2.0		고 졸	78	27.7
가족형태	핵가족	234	84.2	취업여부	대졸(전문대 포함)	14	5.0
	확대가족(친정쪽)	28	10.1		직업있음	243	85.9
	확대가족(시가쪽)	16	5.8	직업없음	40	14.0	
거주지	영구임대	174	61.3	직업	전문기술직	4	1.6
	일반주택	106	37.3		행정 및 사무직	18	7.4
	기타(시설 등)	4	1.4		자영사업(노점상포함)	28	11.5
			근로직(제조업)		33	13.6	
			단순노무		132	54.3	
			기타(가내수공업포함)		28	11.5	

* 무응답에 따라 변수마다 사례수가 다소 차이가 있음.

후 편모에게 남겨 되는 부모역할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애들 없었으면 벌써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애들 위해 산다고 그래요. 애들이 거주장스럽고 짐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프다가도 자식이 뭐라고 하면 즐겁고,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40세, 중학생 아들의 어머니, 식당종업원)

“애들 크기만 하면 무슨 걱정이야 하면서 살았어요. 매일 콩나물만랑 어서 컸으면 좋겠더라고요.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애들 쪽 눅혀놓고 들여다 보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42세, 중학생 딸

의 어머니, 파출부)

그러나 경제적, 정서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기르는 빈곤층 편모들에게 자녀가 긍정적 존재만은 아니어서, 자녀를 양육, 교육시키는 것이 커다란 심리적 부담인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모두 공부시켜야 할 지... 공부시켜서 각자 돈 벌어 독립할때까지 키울것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나하나도 제대로 책임을 못지면서 자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우울해요. 책임감때문에 키우는 것이

지 자식만 쳐다 보고 산다는 것은 힘든 것 같아요.” (35세, 초등학교 딸의 어머니, 가내수공업)

다시 말하여, 자녀가 희망이며 보람이지만 반면에 무거운 짐으로도 느껴지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빈곤층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의 두가지 측면 중에서 긍정적/지지적 관여 수준은 평균 2.99점(표준편차=0.64)이며,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의 전반적 경향은 평균 2.56점(표준편차=0.62)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긍정적/지지적 관여와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수준보다 긍정적/지지적 관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지지적 관여와 처벌적/비일관적 훈육간의 차이를 paired t-검정한 결과, $t = -7.09(p < 0.01)$ 이다. 즉, 빈곤층 편모들은 처벌적/비일관적 훈육행동보다 긍정적/지지적 관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편모들은 두가지 측면의 부모역할 수행을 다른 정도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역할 수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적절한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 미치는 변수

1). 스트레스

응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경제적 스트레스($M=3.10$)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녀관련 스트레스($M=2.78$), 건강 스트레스($M=2.60$), 주위환경 스트레스($M=2.25$), 그리고 대인관계 스트레스($M=2.14$)순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편모가족들은 가족구조의 변화 이전에도 이미 그들 중 대부분이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McLanahan & Booth, 1989),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했던 배우자를 잃은 후 그들은 더욱 더 만성적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경험할 것이다.

경제적 스트레스의 내용으로 그들은 자녀교육비로

인한 어려움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자녀관련 스트레스 중 ‘성적 저하’,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서’ 등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그리고 ‘자녀가 나쁜 친구를 사귀며 문제행동을 일으켜’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문제행동이 편모가족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부합되지 않는다. 청소년 비행이나 탈선이 가족구조에 의해서만 초래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가족구조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가 확대·해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빈곤편모가족이 경험하는 주위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아서’, ‘영구임대 거주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생활보호자라는 처지’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도 복지대상자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stigma)으로 지각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엄마들이 낮에 일 나가니까 집에 없어서 애들 방치해서 그런지 전부 길거리애 노는 애들이에요. 학원가는 애도 없고. 애들이랑 어울리면 놀기만 하지요. 잘 사는 동네에 살아야 본받을 것이 있을텐데 ...” (42세, 중학생 딸의 어머니, 회사원)

“동사무소에 가면 부끄러워요. ‘배급 타먹는 주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지더라고요. 자격지심이겠지요. 아마... 나는 죽을때까지 평생 영세민 아니겠어요?” (42세, 중학생 딸의 어머니, 무직)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빈곤층 편모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낮은 정도($M=2.14$)를 보였는데, 이같이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은 편모들이 시간이 없어 친척 또는 친구 등과 왕래할 기회가 적은 탓에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 심리적 디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디스트레스의 평균은 2.12점(표준편차=0.52, 범위 1점~4점)으로, 대상자들은 때때로 우울이나 불안울 느끼는 상태이다. 그러나 때로는 심층면접을 통해 심각한 디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허무하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밤에 울기도 많이 하지요.”(43세, 중학생 아들의 어머니, 옷 수선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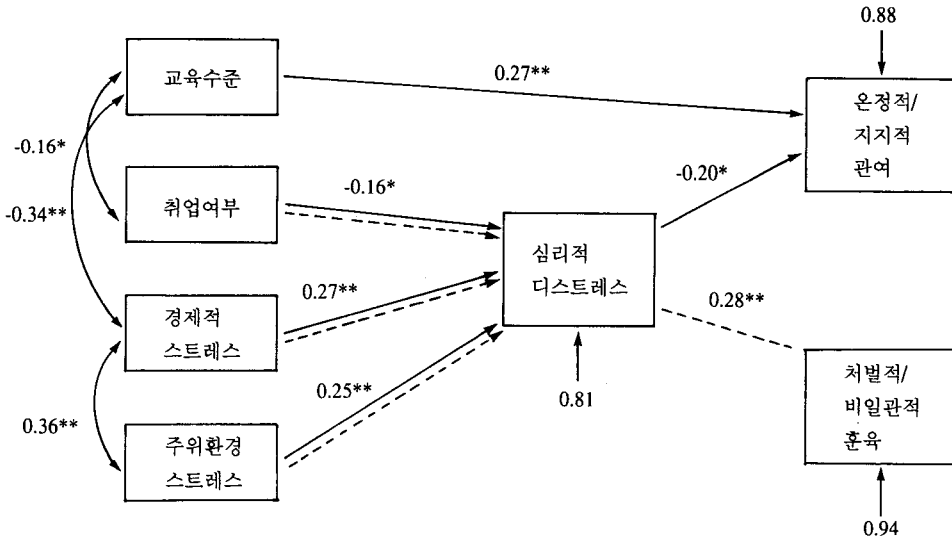
“작년부터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해요. 사는 것에 희망도 없고 회의를 느껴요. 10년만 살면 애들 공부 다 가르치니까 죽어도 된다고 요즘은 입버릇처럼 말해요.”(37세, 중학생 아들의 어머니, 식

당 종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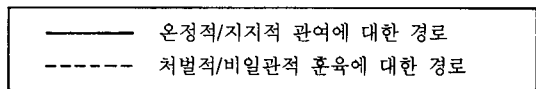
이처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밖으로 표출하는 결과는,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 또는 회피하는 반면에 여자는 감정을 더욱 더 외부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Rubin(1976)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3).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경로모형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을 온정적/지지적 관여와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련변수들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 영향 분석에 있어 심리적 디스트레스-부모역할수행을 먼저 조명한 후, 환경적 요인-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따라 부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외부화살표는 잔차효과를 나타내며, $\sqrt{1-R^2}$ 으로 계산됨
 * : $p < 0.05$
 ** : $p < 0.01$



<그림 2> 빈곤층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경로모형

〈표 2〉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온정적/지지적 관여		처벌적/비일관적 훈육	
	b	β	b	β	b	β
자녀수	0.13	0.11	-0.02	-0.04	-0.06	-0.10
자녀연령	-0.17	-0.03	-0.02	-0.06	-0.04	-0.14
취업여부(직업있을때=1)	-0.28	-0.16*	0.02	0.01	-0.02	-0.01
교육수준	0.33	0.03	0.15	0.27**	0.02	0.04
경제적 스트레스	0.61	0.27**	-0.02	-0.12	-0.02	-0.14
자녀관련 스트레스	0.33	0.08	-0.01	-0.04	-0.01	-0.02
주위환경 스트레스	0.14	0.25**	-0.03	-0.13	0.03	0.14
대인관계 스트레스	0.16	0.03	-0.06	-0.18	0.01	0.02
건강 스트레스	0.51	0.11	0.04	0.15	0.01	0.04
심리적 디스트레스			-0.06	-0.20*	0.16	0.28**
R ²	0.34		0.23		0.11	

* : p < 0.05

** : p < 0.01

모역할 수행의 두 종속변수에 대하여 경로분석 결과, 직접 또는 간접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변수들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포함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가설 3-1〉에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2〉에 의하면 먼저, 온정적/지지적 관여에 여러 독립변수 중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부정 영향($\beta = -0.20$)을 미쳐,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온정적이거나 지지적 관여행동을 덜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모의 부정적인 정서상태와 부모역할 수행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Simons, 1993)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겠다. 또한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에 심리적 디스트레스($\beta = 0.28$)는 긍정적 영향을 미쳐, 종합적으로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디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있어서 부모역할 수행의 두 하위영역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면 온정적/지지적 관여행동은 감소하고, 처벌적/비일관적 훈육행동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방향성 뿐아니라 그 영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 〈표2〉에 의하면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한단위 증가할 때 온정적/지지적 관여는 0.06만큼 낮아졌으며,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은 0.16만큼 높아졌다. 따라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온정적/지지적 관여보다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손쉽게 자신의 감정을 풀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편모의 억제할 수 없는 감정처리가 자녀에 대한 화풀이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처럼 편모의 불안정한 정서상태는 곧바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모역할 수행과 편모/자녀 특성간의 관계를 가정한 〈가설 3-2〉에서 예측한 대로 교육수준은 온정적/지지적 관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0.27$).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편모는 온정적/지지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의하면 편모의 취업여부는 부모역할 수행에 직접적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취업여부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정 관계를 가져($\beta = -0.16$), 취업한 편모들이 직업이 없는 편모들 보다 심리적 디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으며, 이는 결국 온정적/지지적 관여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처벌적/비일관적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수와 자녀의 연령은 편모의 정서상태 또는 부모역할 수행과 어떠한 관계도 보이지 않아 <가설 3-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5 가지 유형 모두가 부모역할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지 않아, <가설 3-3>에서 예측한 스트레스의 직접적 영향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레스 중 경제적 스트레스($\beta=0.27$) 및 주위환경 스트레스($\beta=0.25$)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매개로 부모역할 수행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 및 주위환경 스트레스는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이 높은 수준의 디스트레스는 결국 부모역할 수행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이다. <표2>에 의하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온정적/지지적 관여에 대하여 전체변량의 23%를,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에 대하여 11%를 설명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부모역할 수행의 질을 탐색하였으며, 편모/자녀 특성, 스트레스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와 이들 변수들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요보호 편모가족 중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 자녀를 둔 편모 28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편모의 부모행동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은 자녀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에 관련시켜 주로 부적절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모역할 수행은 다차원적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수행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층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에는 긍정적인 측면인 온정적/지지적 관여와 부정적인 측면인 처벌적/비일관적 훈육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빈도에 있어서는 처벌적/비일관적 훈육행동보다 온정적/지지적 관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편모가족의 자녀문제를 접근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즉, 편모가 양친가족 어머니에 비해 자녀를 적절히 돌보지 않는 부모라는 인식이 재고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편모와 양친가족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직접비교하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역할 수행의 결정요인을 탐색한 결과, 편모가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및 주위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간에는 직접적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고,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여 빈곤층 편모가 수행하는 부모역할에는 환경적 요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러한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편모들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나아가서 양육 및 훈육행동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편모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빈곤층 편모가 적절하게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모를 둘러싼 생활환경과 심리적 복지와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환경의 스트레스로 인해 생성되는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 특히, 빈곤층 편모들이 겪는 경제적 스트레스 및 주위환경 스트레스가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기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의 모색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빈곤층 편모의 취업은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그 결과 부모역할 수행에 간접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취업편모들은 생

제를 위해 취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시간 일해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업역할과 자녀양육 역할의 과중한 역할 부담을 안게되며, 따라서 취업이 부모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취업편모의 경우 취업하지 않은 응답자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취업이 부모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빈곤층 편모의 정신건강 도모와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편모 스스로 자영업을 할 수 있게 생산자금을 저리로 대부해주는 방법도 기대된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심리적 디스트레스 정도를 우울과 불안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편모가 안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 정도가 만성적이어서 그들 스스로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 결과 응답자의 응답이 일관되게 중양치로 가는 경향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할 때 심층면접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부모역할 수행에 설명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명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으로 계층을 통제된 상태에서 편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에 주로 관심을 두고 인성특성이나 대처능력과 같은 편모의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특성은 연구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이 편모의 디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들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또한 자녀의 연령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자녀연령과 부모역할 수행간의 관계는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린 경우 편모가 된 기간에 의해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두 변수간 관련성 분

석에는 편모가 된 기간 등의 변수가 통제 되어야 하는 등 더욱 정교한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이를 통해 나온 변수들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데는 제한이 있다. 경로모형의 성격상 변수간 관계를 일방적 관계로서 설명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하나의 종합적 분석틀 안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관련변수들간 관계 파악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취업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분석결과는 빈곤층 편모가족에 대한 연구 및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성혜 · 한유진(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연구, 제 20호, 60-73.
- 2) 고정자 · 김갑숙(1996). 가족응집성, 적응성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34권 1호, 65-78.
- 3) 김인숙(1994a).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4) 김인숙(1994b).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와 가족복지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제 19호, 겨울, 5-18.
- 5) 김정자(1985). 편부모 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여성연구, 봄, 30-78.
- 6) 김정자(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가을.
- 7) 박미령(1992). 도시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문제.(pp. 55-97)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서울:하우.
- 8) 백경희(1987). 빈곤모자가족 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한경혜(1993). 한국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 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79-104.

- 10) Bank, L., Forgatch, M., & Patterson, G.(1993). Parenting practices of single mothers: Mediators of negative contextual factors. *J. of Marriage and Family*, 55, 371-384.
- 11) Belle, D.(1982). *Lives in Stress: Women & Depression*. Beverly Hills, CA: Sage. 133-178.
- 12) Crnic, K. A., & Greenberg, M.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13)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78). The aftermath of divorce. In J. H. Stevens, Jr., & M. Mattenes (eds.), *Mother-Child, Father - Child Relation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14) Kessler, R.C., & MacRae Jr., J.A.(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the married ma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216-227.
- 15) Maccoby, Y.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1-101) New York: John Wiley & Sons.
- 16) McLanahan, S., & Booth, K. (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17)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18) Olson, S. L., & Banyard, V.(1993). Stop the world so I can get off for a while- Sources of daily stress in the lives of low-income single mothers of young children. *Family Relations*, 42-50-56.
- 19) Pett, M.A., Vaughan-Cole, B., & Wampold, B. E. (1994). Maternal employment and perceived stress - Their impact on children's adjust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young divorced and married families. *Family Relations*, 43, 151-158.
- 20) Rubin, L. B. (1976). *Worlds of Pain: Life in the Working-class Family*. New york: Basic Books
- 21) Simons, R., Beaman, J., & Conger, R.(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22) Weinraub, M., & Wolf, B. M.(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s onmother-child interaction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54, 1277-1311.
- 23) Zelkowitz. P. (1982). Parenting philosophies and practics. In. D. Belle(Ed.),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 (pp. 154-162) Beverly Hills, CA: Sage.